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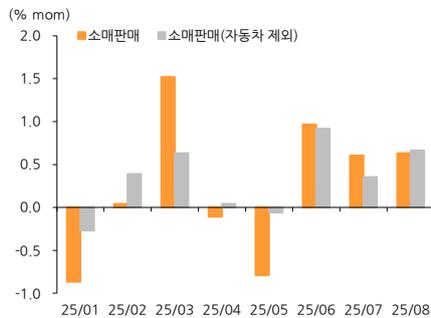
# Macro Review

## 8월 미국 소매판매: 보수적인 소비 패턴

▶ Economist 최규호 choi.gh@hanwha.com 02-3772-7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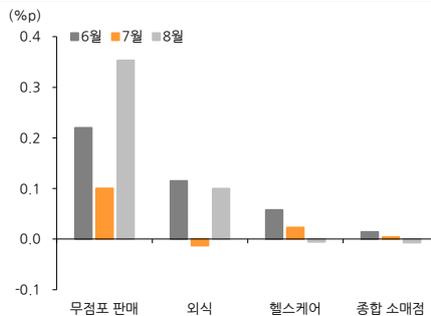
### [주요 데이터 및 차트]

8월 미국 소매판매 전월대비 0.6% 증가



자료: U.S. Census Bureau,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무점포 판매 기여도 상위



자료: U.S. Census Bureau,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미국 소매판매는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와 외식이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구매성향과 고용 둔화를 고려하면, 당분간 소비는 완만하게 약해질 전망입니다.

### 소매판매 예상치 상회

8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6% 증가. 무점포(+2.0%) 판매가 크게 늘어났고, 외식(+0.7%) 판매도 반등했기 때문. 자동차(+0.5%)와 주유소(+0.5%) 판매 3개월 연속 증가. 다만 전자재, 가구 등 일부 내구재 수요는 상대적으로 약했음. 무점포 판매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3% 증가

### 추세는 완만한 둔화

소비는 둔화 추세에 있음. 금변 양호한 의류, 스포츠용품 판매는 개학 시즌 영향 감안할 필요. 온라인(무점포) 쇼핑 증가 또한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이 낮은 상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 대형 유통업체들도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해 상품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다고 언급. 고용 둔화, 관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소비 패턴 지속

다만 소비 둔화 폭은 완만할 것. 가계 구매력이 양호하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소득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되지 않았음. GDP 상품 지출 관련 통제 그룹(Control-group) 소매판매(+0.7%)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도 양호한 수요 시사. 소비 둔화 추세 예상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 하방 압력은 완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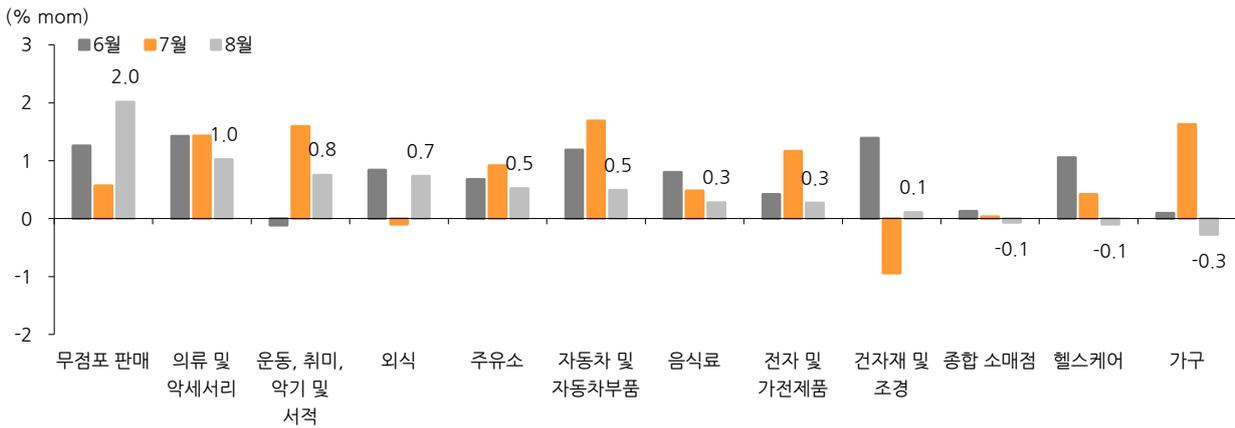
[표1] 미국 소매판매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            | 전월대비 |      |      |      |         | 전년동월대비 |      |      |      |         |
|-----------------|------|------|------|------|---------|--------|------|------|------|---------|
|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소매판매            | -0.1 | -0.8 | 1.0  | 0.6  | 0.6(-)  | 5.0    | 3.4  | 4.4  | 4.1  | 5.0(Δ)  |
| (자동차 제외)        | 0.0  | -0.1 | 0.9  | 0.4  | 0.7(Δ)  | 4.1    | 3.7  | 4.0  | 3.9  | 4.9(Δ)  |
| (주유소 제외)        | -0.1 | -0.8 | 1.0  | 0.6  | 0.6(-)  | 6.0    | 4.1  | 5.0  | 4.6  | 5.5(Δ)  |
| (자동차 및 주유소 제외)  | 0.1  | 0.0  | 0.9  | 0.3  | 0.7(Δ)  | 5.3    | 4.7  | 4.7  | 4.6  | 5.4(Δ)  |
| (외식 제외)         | -0.3 | -0.9 | 1.0  | 0.7  | 0.6(▽)  | 4.7    | 2.9  | 4.0  | 3.8  | 4.8(Δ)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0.7 | -3.8 | 1.2  | 1.7  | 0.5(▽)  | 8.7    | 1.9  | 6.4  | 4.7  | 5.6(Δ)  |
| 가구              | 0.0  | -0.5 | 0.1  | 1.6  | -0.3(▽) | 7.4    | 5.7  | 4.5  | 5.4  | 5.2(▽)  |
| 전자 및 가전제품       | 0.1  | -0.4 | 0.4  | 1.2  | 0.3(▽)  | -0.3   | -1.8 | 0.1  | 0.9  | 3.7(Δ)  |
| 건자재 및 조경        | 0.5  | -2.7 | 1.4  | -0.9 | 0.1(Δ)  | 2.3    | -1.1 | -0.2 | -2.5 | -2.3(Δ) |
| 음식료             | 0.0  | -0.6 | 0.8  | 0.5  | 0.3(▽)  | 2.7    | 2.2  | 2.7  | 2.4  | 3.2(Δ)  |
| 헬스케어            | -0.3 | 0.6  | 1.1  | 0.4  | -0.1(▽) | 8.7    | 8.5  | 9.7  | 5.7  | 5.1(▽)  |
| 주유소             | -0.4 | -0.7 | 0.7  | 0.9  | 0.5(▽)  | -6.7   | -5.3 | -3.3 | -2.4 | -0.7(Δ) |
| 의류 및 약세서리       | 0.2  | 0.5  | 1.4  | 1.4  | 1.0(▽)  | 4.4    | 3.7  | 5.1  | 6.4  | 8.3(Δ)  |
| 운동, 취미, 약기 및 서적 | -2.9 | 0.9  | -0.1 | 1.6  | 0.8(▽)  | 0.5    | 1.1  | 0.5  | 4.2  | 4.7(Δ)  |
| 종합 소매점          | 0.0  | -0.1 | 0.1  | 0.0  | -0.1(▽) | 2.6    | 2.1  | 2.4  | 1.5  | 1.9(Δ)  |
| 무점포 판매          | 0.1  | 0.7  | 1.3  | 0.6  | 2.0(Δ)  | 8.4    | 7.8  | 5.6  | 7.8  | 10.1(Δ) |
| 외식              | 0.8  | -0.2 | 0.8  | -0.1 | 0.7(Δ)  | 6.9    | 6.1  | 6.9  | 6.2  | 6.5(Δ)  |

주: 이전치 대비 상승(Δ), 하락(▽),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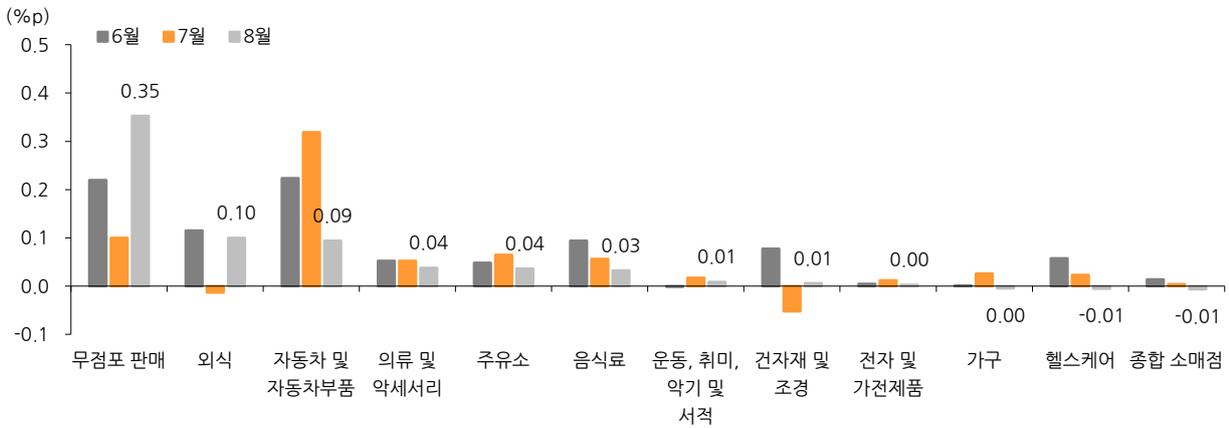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전월대비 증감률: 무점포 판매 반등, 비내구재 중심으로 판매 증가



자료: U.S. Census Bureau,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전월대비 증감률 기여도: 무점포와 외식 판매 기여도 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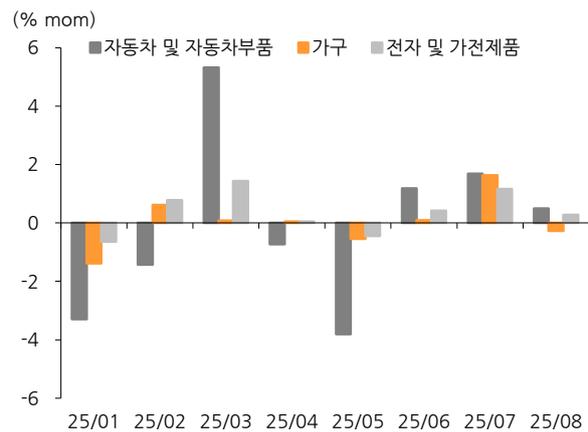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소매판매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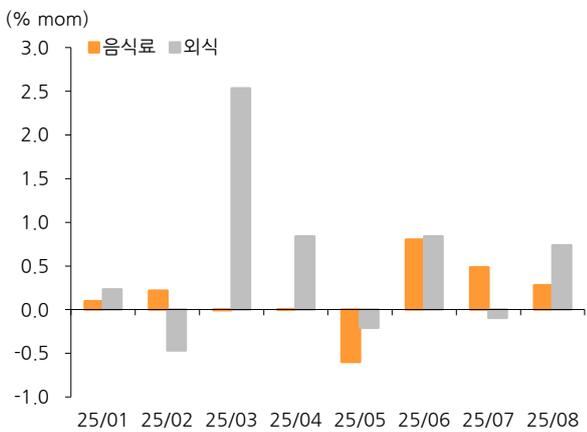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내구재 수요는 상대적으로 약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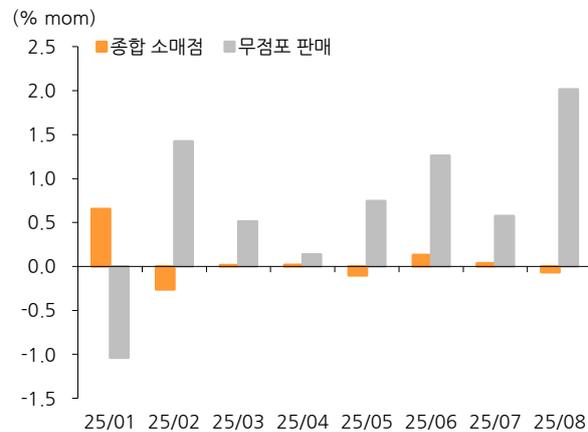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외식 서비스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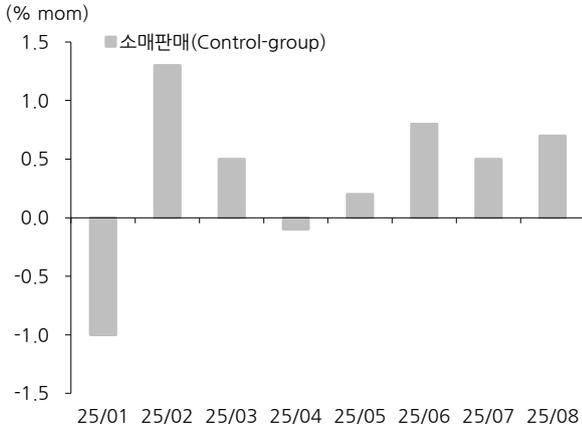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무점포 판매는 7개월 연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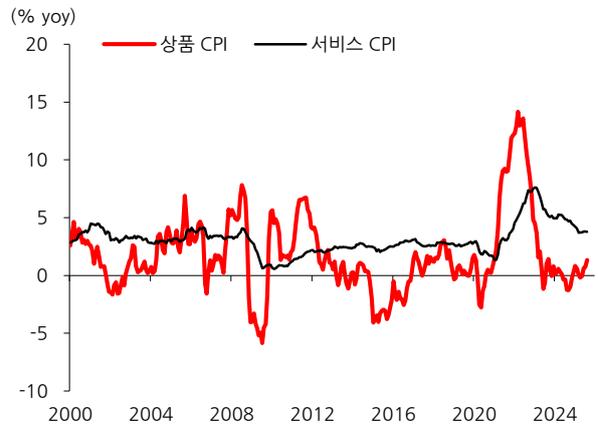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핵심 상품 판매 전월대비 0.7% 증가



주: GDP와 PCE 상품 지출 계산 투입 품목 선별. 자동차, 전자재, 주유소, 외식 제외  
 자료: U.S. Census Bureau,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상품 물가 상승 압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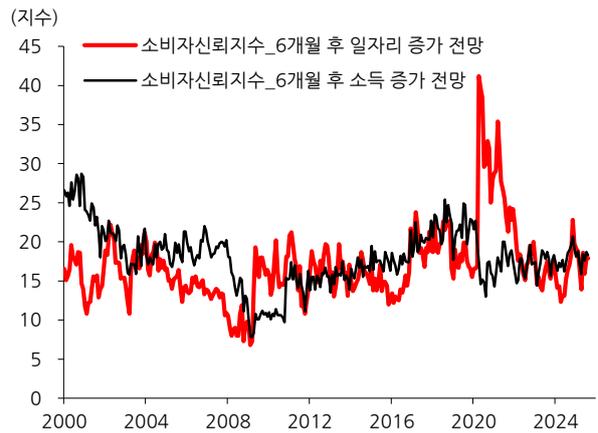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소비심리 회복은 더디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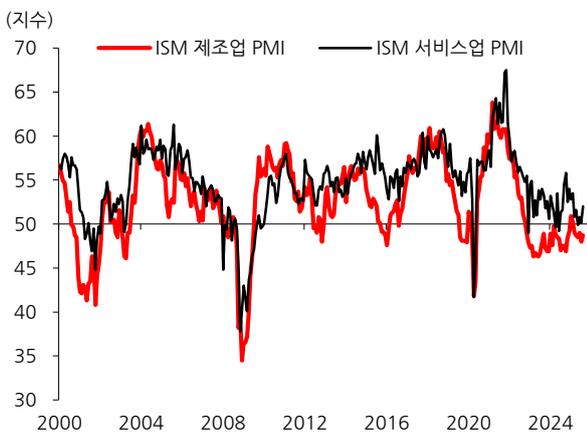
자료: University of Michiga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고용과 소득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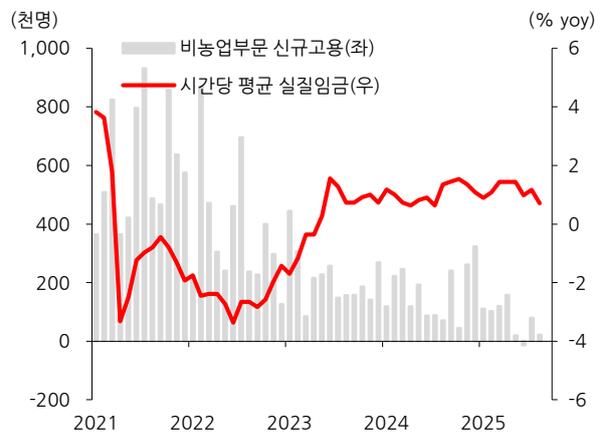
자료: The Conference Boar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제조업 회복 부담



자료: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실질임금 상승 압력 대체로 유지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